

【현대택배, 스포츠시장 물류업무 본격진출】

- 육상중앙연합회(S.A.K.A)와 물류업무제휴로 진출 가시화



현대택배(<http://www.hlc.co.kr>, 대표:김병훈)가 대중 스포츠 단체와의 업무제휴를 본격화하면서 택배서비스를 스포츠시장으로 확대시키는데 영업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시장은 폭발적인 시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계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큰 시장 개발이 기대되고 있던 곳이다.

현대택배는 지난 3월 17일 한국사회체육 육상중앙연합회(S.A.K.A, 회장:김원진)와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갖고 국내 육상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택배서비스 업무에 들어갔다.

현대택배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S.A.K.A가 개최하는 모든 스포츠행사의 물품배송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S.A.K.A는 현대택배의 전국 500여 물류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육상동호인들에게 대외물품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30%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보게 되었다.

올해로 창립19주년을 맞이하는 S.A.K.A는 지금까지 170여개의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하여 100만명이상의 마라톤동호인을 배출하였으며, 우리나라 육상인구 저변확대 및 마라톤 붐 조성에 앞장 서 온 대표적인 육상연합회이다.

현대택배는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국내 스포츠 단체와의 업무제휴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택배는 양질의 물류서비스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컨설턴트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단체가 항상 최적의 물류 환경속에서 본연의 스포츠 업무를 더욱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잠재된 스포츠 시장 수요를 최대한 창출하여 택배시장에도 많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서울월드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포함한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택배 마케팅부 김주호팀장은 “선진국의 경우 스포츠 물류시장은 웅만한 대형 제조업 물류 시장보다도 그 규모가 크며 매년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 참여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고 특히,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스포츠시장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시장 전망은 매우 밝으며 향후 물류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SAP 코리아, 바젤 II 솔루션 세미나 개최】

- 바젤 II 협약은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 SAP의 뱅크 애널리저 통해 선진 금융기관, 바젤 II 준비



지난 4월 20일, 서울-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SAP 코리아(대표 한의녕)는 서울 조선 호텔에서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팀 및 여신 담당자, 컨설팅 회사의 리스크 관리 담당자 등 8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SAP 바젤II 솔루션 세미나”를 갖고, 국내 금융관련 기업의 효과적인 바젤 II 대응 전략 및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SAP 본사의 뱅킹 솔루션 담당 이사, Jens-피터 옌스 (Jens-Peter Jensen)은 세미나의 기조 연설에서, “바젤 II를 위한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대응이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 금융기관 중 독일 Postbank를 비롯한 8개 은행이 SAP 솔루션을 이용하여 구축 중에 있다.”라고 세계 금융기관의 대응을 소개하고, “한국 은행들도 바젤 II 시행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정착과 관련 데

이터 체계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바젤 II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AP코리아는 국내 금융기관에 도입 가능한 바젤 II 대응 솔루션인 SAP의 뱅크 애널리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리스크 분석 엔진을 직접 시연하여 참석자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SAP의 금융솔루션 관련 협력사인 액센추어도 참여하여 신용 리스크 적용 및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SAP 코리아의 한의영 사장은, "바젤 II는 이미 국내 금융업계의 뜨거운 화두가 된 지 오래이며 이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발빠르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단기적인 규제 대응차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사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IT업체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 한다" 며, "SAP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바젤 II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AP의 바젤 II 지원 솔루션은 뱅크 애널리저로, 이 솔루션은 바젤 II 솔루션과 IAS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젤 II 및 IAS 솔루션과 더불어 US GAAP 솔루션, Profit Analyzer, ALM 등을 통합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형식의 통합 재무 및 리스크 아키텍처를 구현할 예정이다.

【한국파렛트 풀, 광주물류센터 오픈】



한국파렛트풀(주)(대표 : 서병훈)은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내 현장에서 광주물류센터 오픈 기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KPP의 광주물류센터는 호남고속도로 광산 IC에서 약 1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550평에 400평, 432평, 250평 규모의 창고 3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옥내 보관능력 1만7,300대를 포함 총 4만800대의 파렛트를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또, 기계화 운영을 통해 월평균 약 4만대, 연간 약 56만대의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는 호남권 물류공동화 중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PP의 이 물류센터는 호남권 지역의 수요가 많은 목재 비료파렛트의 세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척시스템과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목재 보수기 등 파렛트 물류센터의 기계화 진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KPP의 기존 익산 및 여수 물류센터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파렛트 유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은 물론 파렛트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유럽 직항노선 개설】



대한항공은 노르웨이에 이어 비엔나 간 보잉 747-400 화물기로 화물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인천 간 화물기 운항서비스를 지난 3월 29일(월)부터 주 1회(월요일), 지난 4월 18일부터는 비엔나~인천 간 화물 운송서비스를 실시했다.

비엔나 구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분 인천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비엔나에 도착하는 화물기는 브뤼셀을 거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12시 10분 서울로 돌아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용시장인 동유럽으로의 관문인 비엔나와 한국 간 최초의 왕복 화물 노선인 금번 신규노선 취항을 통해, 최근 한국 기업 생산 공장의 슬로바키아 이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유럽행 항공화물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동유럽 시장 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르웨이~인천 노선은 기존 인천~뉴욕 노선에서 뉴욕발 북편의 운항구간을 변경, 대서양을 횡단하여 오슬로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화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부 선박기계류가 오슬로발 화물의 주요 수송 품목이다.

【(주)골드라인, 광주공장 오픈】



(주)골드라인(대표 이흥기, www.goldlinepallet.com)이 지난달 12일 광주 평동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흥기 골드라인 사장을 비롯해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문 회장, 광주시 송병태 광산구청장, 중국 靑島 來西시 장루이 부시장, 일본 츠크바 고무화성 마사히로 사미지마 사장 등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평동공단에 들어선 광주공장은 부지 8,400평, 건평 2,500여평에 달하고 3,000톤급, 1,600톤급, 750톤급 등 플라스틱 파レット 생산용 사출기 3개와 Anti-slip Taping M/C, 철제 물류기기 생산용 롤포밍기, 로봇 용접기 등의 설비가 도입됐다.

설비도입에 따라 플라스틱 파レット와 박스, 철제 컨테이너 및 기류를 생산할 수 있는 평동공장은 연간 50만매에 달하는 플라스틱 파レット와 연간 5만매의 철제 컨테이너를 생산할 수 능력을 갖췄다.

이날 준공식에서 이흥기 사장은 “평동공장을 새롭게 준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어려움을 골드라인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내고 일궈낸 성과이자 골드라인을 사랑하는 분들의 성원의 결과”라며 “공장 준공은 골드라인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물류기기 전문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 골드라인은 금호석유화학, 한국파렛트폴, 한국컨테이너폴 등 많은 국내 기업에게 물류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화에 따른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매출은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글로벌 톱5 진입을 위한 물류역량 강화】

- 신차종 모닝에 新 시스템 및 물류기법 도입, 적용
- 전사원 물류 MIND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실시
- 물류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사 물류비 관리시스템 구축

■. 사이버 물류교육 화면(초기화면)

기아자동차(社長 윤국진, www.kia.co.kr)는 2010년 글로벌 톱 5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아래 물류 인프라 구축, 신차종 개발, 해외 공장 건설,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각 부문별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류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아자동차는 금년 3월 시판된 신차종 모닝에 신 시스템 및 물류기법을 적용,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하여, 내수/수출 판매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신차종 모닝에 적용한 JIT(JUST IN TIME) 운영체제는 도요타 자동차의 운영체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필요한 양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모토아래 간판(정보수단)을 사용하여, 사용한 부품량 만큼만 납입 지시하는 방식으로, 부품 보관면적,

재고금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웹방식 시스템에 의한 재고정보를 실시간 협력사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결품에 의한 라인중단 및 협력사 상주원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신물류 운영기법으로 KIA 차체 생산계획에 의하여 협력사에서 서열 생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인 차체 동기화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기존공장 운영방식 대비 서열에 의한 추가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서산공장 인근(8 Km,15분)에 대규모 물류센터(대지 4,400평,건평 1,000평)를 건립하여 권역별로 협력사(총 83사) 부품을 순회수송을 통하여 물류센터에 집하하고, 집하된 부품을 통합 운송하여 납입하는 사이 물류센터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달 물류비의 합리화에 기여하였다.

또 협력사에 의한 자율 하역체제, 바코드시스템 및 RFID시스템 등의 FOOL PROOF 시스템 도입으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물류기법을 구축, 신차종 모닝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신 물류기법의 도입효과로 발생 물류비를 최소화하여 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이러한 JIT 운영체제 및 신 물류기법은 신 차종 개발 시부터 도입, 확대 적용하여 GT-5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며, 해외공장 및 협력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다.

향후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톱 5 조기진입을 목표로 신 시스템, 신 기법 확대 적용, 전사원의 인재 물류교육, 시스템에 의한 비용 관리를 통하여 물류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의 물류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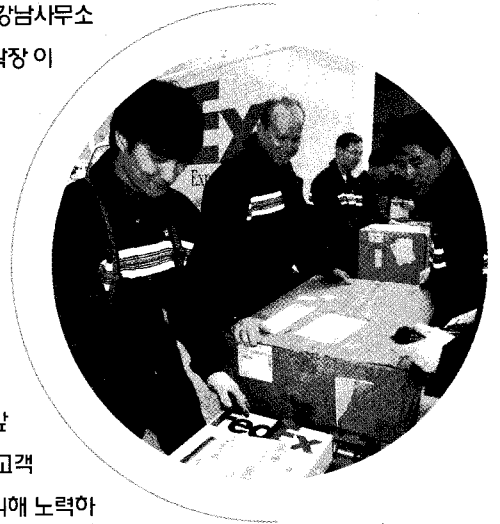
【FedEx, 강남사무소 이전】

-4월6일부터 370 % 확장된 새 사무소에서 고객서비스 제공



FedEx(www.fedex.com, 한국대표이사 데이빗 카든)가 강남사무소를 방배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지난 4월 2일 데이빗 카든(David B. Carden)과 임직원들은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이전식을 갖고 앞으로의 영업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데이빗 카든 사장은 "강남지역의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강남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남사무소는 현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및 성남, 하남시 등의 지역의 화물접수 및 배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 8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새롭게 이전된 강남사무소는(서초구 방배동 791-1) 이전보다 370% 확장된 규모로(기존 사무소130여평),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대지 500여 평에 사무실, 교육실, 직원휴게실, 화물분류창고,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4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창고 내부와 연결되어 있어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